

#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Reading Movement and Newspaper in Education Activity

임 성 관 (Seong-Gwan Lim)\*\*

### 목 차

- |           |                         |
|-----------|-------------------------|
| 1. 서 론    | 3.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 |
| 2. 이론적 배경 | 4.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독서 운동과 NIE 활동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 등이 실시되었으며,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개념, 문제점, 그리고 향후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을 가지고 독서 운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NIE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 means of connecting reading movement and Newspaper In Education (NIE) activities utilizing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school districts and autonomous government entities. This is necessary to revitalize or systematize the environmental social life of reading newspapers and NIE activity. Literary or inquiry research will be initi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quantify the current or actual conditions of this connection, delineating the basic objectives of this study, and determining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continuing this study as related to the connection of reading movement and NIE activity. Anticipated study activities or major task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 a variety of intended programs and learning materials necessary for each. Secondly, develop and establish corresponding online data and educational programs. Thirdly, a "cooper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training programs implemented reinforcing these ideas. And, lastly (and to gain wider acceptance), starting a public relations campaign to show or illustrate the benefits of this study and these intended research activities. In conclusion, if a connection between reading movement and NIE activity are fully established and periodically adjusted by means of continuing discussions on the merits or concern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full potential of the reading movement connection with NIE activity will be realized and achieved to its truest meaning and/or highest order.

키워드: 독서 운동, 신문, 신문 활용 교육, NIE 활동, 연계 방안

Reading Movement, Newspaper, Newspaper in Education, Newspaper in Education Activity, Connection Between

\* 본 논문은 2015년 5월 15-16일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15 봄철 정기학술대회 출판과 커뮤니케이션 연구회'에서 발제한 내용임.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209-231,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20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사람들의 독서 영역을 시각 위주의 읽기에서 벗어나 보기 및 듣기, 느끼기 등 오감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또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는 방식을 넘어,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3년 제15회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인의 독서율은 2011년 대비 4.6% 증가했고, 학생은 12.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1994년 97.6%)에 근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0).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정부의 '독서의 해'(2012년) 독서 캠페인 전개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 읽는 도시' 독서 시책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대로라면 국민들의 독서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중 '컴퓨터·인터넷·휴대전화·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4.9%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기기의 활용이 국민의 독서에 역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독서 실태조사의 범위는 '일반도서'(종이책 및 전자책)로 제한을 하고 있어 '신문'은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신문은 '살아 있는 교과서'라 불리며 하루에도 다양한 분야의 새 소식이 두루 실리는 매체이며, 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등 오히려 독서의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더 좋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실태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아, 독서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영향인지 2013년 10월 21일에 발간된 윤관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구별 신문 구독율은 2002년의 52.9%에서 2012년에는 24.7%로 절반이 넘게 줄었고, 열독율 역시 2002년의 82.1%에서 2012년에는 40.9%로 급감했다(윤관석 2013, 1). 이 보도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을 얼마나 열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국내 신문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고 그에 따라 NIE(Newspapers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역시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독서 운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특히 신문을 읽고 교육적 활동으로 연결을 짓는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독서 문화 활성화에 신문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에 따른 과제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더불어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연계 방안을 모색한 실례를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리한 내용은 우리나라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면서, 가정-학교-사회로 이어지는 독서 및 NIE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활발히 접목되어 실행될 수 있는 독서 운동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계 방안은 실천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제안할 것이며,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의 예시 또한 제시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는 '독서 운동'과 'NIE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고찰하고, 나아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그동안 두 분야의 연계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1 독서 운동

#### 2.1.1 독서 운동의 성립과 발전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독서 운동은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고, 공공도서관 설립을 통해 자율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1913년부터 홍사단은 대학생, 일반 대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1920-193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글 보급 운동 및 농촌 계몽의 브나로드 운동(v narod movement)<sup>1)</sup>을 펼치면서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 활동을 전개하였다(윤금선 2005, 163).

1953년 이후 한국전쟁 후 회복기에 즈음하여 국민 교육 정책과 더불어, 교양의 지렛대로서 독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큰 것이었지만 미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끼친 문화적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었다. 즉, 주로 미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문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 욕구를 발동시켰다. 영어 교육 붐이 일었고, 전후에 크게 팽창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새로운 도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을 갈망했다(박몽구 2014, 97).

이후 여러 계기(마을문고 운동, 공공도서관의 증설, 입시 제도의 변화 등)와 위기(IMF 등)로 인해 독서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MBC-TV의 '느낌표 -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와 KBS-ITV의 'TV, 책을 말하다'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특히 '느낌표'는 순천, 제천, 서귀포 등 전국의 여러 도시에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고, 이후 작은 도서관의 설립이나 지속적인 독서 문화 정책의 시행, 인터넷 및 스마트 폰의 발달

1) 브나로드(v narod)란 원래 '민중 속으로'를 뜻하는 러시아 말로, 공동체 미르(mir, 러시아의 독자적인 농민자치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지식계층이 민중계몽을 위해 농촌으로 파고들었을 때에 내세운 슬로건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사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하여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전국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의미한다.

은 독서 운동에도 변화를 가져 왔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 2.1.2 독서 운동의 개념

독서 운동은 '독서'와 '운동'의 합성어로, 독서는 그 행위가 오래된 만큼 다의적인데 일반적으로 책읽기(국립국어연구원 1999), 글 읽기(허재영 2006, 178)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독서 운동은 독서 진흥, 독서캠페인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창호 2008, 9-11).

독서 진흥은 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해 왔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보고서에는 줄곧 독서 진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정책 개발에도 늘 독서 진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다른 예는 문예 진흥, 중소기업 진흥, 수출 진흥 등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된다. 독서 진흥의 내용에는 「독서문화진흥법」·「도서관법」 등 법률 제정, 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관 장서 구입비의 증액, 독서의 달 행사 추진 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대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며 강제성이 있다. 또 독서 진흥은 잘 정비된 조직력을 갖추고 전개된다. 따라서 그동안 독서 진흥이라는 용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의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운동 대상이 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서 진흥은 국민들이 보다 풍족한 독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독서 시설의 확충, 독서 장려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은 주로 언론사가 독서 운동을 전개할 때 사용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한겨레신문사가 학교도서관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개한 '사회의 책을 학교로' 캠페인, 2002년 문화방송사의 '느낌표 -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프로그램, 같은 해 문화일보사의 '다시 책이다' 캠페인 등에서 볼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광범위하게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독서 캠페인은 범위의 포괄성과 홍보를 통한 계몽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독서 캠페인을 많이 전개하며, 또 특정 단체의 독서 캠페인이라도 언론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겠다. 독서 캠페인의 주체는 단일한 조직일 수도 있고 여러 주체가 함께하는 경우도 있으며, 캠페인 참여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다. 또한 그동안 언론사의 독서 캠페인을 보면 일정 기간 한정하여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한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은 다양한 독서 행사가 동반 추진되기도 했는데, 이는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캠페인의 내용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

독서 운동은 '독서 마라톤', '독서 릴레이', '책 선물 릴레이', '북 스타트', '한 책, 한 도시 운동', '북 크로싱', '독서 300권 운동', '독서 이력철'과 같이 운동의 명칭에 운동의 목표와 방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독서 운동에 따라서는 목표 도달 정도를 계량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서 운동은 하나의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 운동도 자율성과 민주성이 인정되며 독서 운동에의 참가는 독서 캠페인보다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서 운동이 네트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독서 운동은 운동 대상에의 접촉 정도가 독서 진흥이나 독서 캠페인에 비해 직접

〈표 1〉 독서 진흥, 독서 캠페인, 독서 운동의 개념 비교

구분	독서운동		
	독서 진흥	독서 캠페인	독서 운동
주체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단위 운동 조직(주로 언론)	다양한 단위 운동 조직, 일반 국민
대상	국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주내용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정책 변화, 계몽, 독서 행사	독서 정책 변화, 독서 행사, 독서교육, 특정 독서 프로그램
특징	강한 조직력, 지속성	한시성, 대규모 홍보, 여러 단체의 협력	목표 지향성, 계량화 가능, 네트워크화, 강한 연대감, 강한 유연성
지향점	독서습관 형성, 독서생활화, 독서 문화의 고급화		

적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독서 운동은 '북 스타트'나 '한 책, 한 도시 운동'처럼 규모가 커지고 다원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위한 시민연대'의 독서 이력철 시행 반대운동과 같이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여 운동 대상에 따라 독서 운동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기도 한다. 즉 독서 운동은 독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때 운동 대상은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 운동의 개념은 가변적이고 매우 유연하다. 이러한 독서 운동의 개념적 특성은 독서 진흥, 독서 캠페인을 포괄하는 대표 용어로서 독서 운동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이때의 독서 운동은 광의의 의미로서 독서 운동(reading movement)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2 NIE 활동

### 2.2.1 NIE의 개념

NIE란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을 교육에 접목한다는 의미이다. "교육 속에 신문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어, 미

국·유럽·일본·호주 등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신문을 교육에 활용할 것을 주장할 만큼, 신문의 교육적 기능을 빨리 인식하였다. 20세기 초 노르웨이에서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신문을 이용한 진보적 교수방법론을 주장한 기사문이 있다(김수경 2013, 4). 김훈순(1994)은 일본 NIE 교육은 일본의 교사들 측에서 개인적으로 신문을 이용한 교육이 자체적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신문협회의 도움으로 진지한 교육론이 검토되어 각 학교에 정식 교육방법으로 보급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NIE 교육은 청소년 교육에서 사회성과 인간성 함양을 위해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판단 능력을 키우는데 유용하고 의견개진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1994년 5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과부 장관 앞으로 신문 활용 교육의 도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정부에서 7개항의 실천계획(신문 알기 교육, 신문 읽기 교육, 신문 제작 실습, 시사 토론 연습을 통한 전인 교육, 민주교육, 사회교육, 역사교육)을 주안으로 신문을 교육과 학습에 유용하게 이용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신문 활용 교육은 'NIE 운동'으로 호명되어 확산되었고, 정

부 차원이거나 교육과학부 차원이 아닌, 특정 언론사나 사단법인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이용하고 신문사의 지원 아래 학교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여 일정 교육기간을 채운 뒤, 학교 수업에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하였다. 일반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저널을 포함한 인쇄매체로 NIE는 신문사와 교육계의 협력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대표적인 신문들의 활용 교육이라고 한정되어 사용하고 있다(김수경 2013, 4).

### 2.2.2 NIE 활용 및 활동

일반적으로 NIE는 사실이나 칼럼·만화·광고·독자 의견·교육·교육·환경·사회·문화·정치경제·스포츠 등 신문에 나온 모든 자료를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신문은 매일 여러 가지 사건이나 정보들을 쏟아낸다. 오락적 기능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유용한 정보, 또는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부하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생각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신문은 지식의 주요 원천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성태모 2011, 42).

### 2.3 독서와 NIE

책을 읽는 일은 숨을 쉬거나 졸리면 잠을 자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자연스런' 행위가 아닌데, 그것은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도정일, 장영희 외 2008). 따라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개입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가치와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이성영 2014, 216).

독서는 문자 해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자 해독을 거쳐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재구성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독자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바탕 체계 아래 글에 대한 이해와 전이, 확산, 수용, 확대의 과정을 거쳐 분석, 추론, 판단, 종합의 총체적인 사고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독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의 운용, 정의적인 측면에서 정서와 건강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습의 과정이다. 독서는 학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릴 때 습관이 형성되면 꾸준히 혼자서 학습이 가능한 분야다. 독서는 당대의 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참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김수경 2013, 6).

신문은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보 터이고 최신의 대중 의견을 형성하거나 사회의 문제를 소개하는 주체다. 신문을 독서의 사실적 주제에 근거한 실제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현실성과 실제성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긍정적 참여를 통해 학습자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이끌 수 있다. 교과 내용의 한정성과 경직성으로 일어나는 학습자 이해의 한계는 신문을 통한 사고 확장 수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김수경 2013, 5-6).

### 2.4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독서 운동과 신문이 연계된 것

을 위주로 찾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서 운동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많지만, 신문이나 NIE 활동과 연계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측면의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해 다룬 연구도 고찰하였다.

먼저 채예송(2014)은 '1960-1970년대의 독서 운동에 관한 연구: 신문 자료에 나타난 도서 목록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1960-1970년대에 간행되었던 신문자료를 근거로 독서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권장했던 책 목록을 다시 주제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독서 운동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반공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된 경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이 시기의 독서 운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책을 접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둘째, 독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고전의 발굴 및 문학성의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셋째, 당시 선정된 인문학 서적들은 학생의 인성 및 교양 교육을 염두에 두어 전인 교육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박영민(2004)은 '신문 서평의 비판적 검토와 사회적 독서 교육의 방향' 연구를 통해 신문 서평과 관련된 독서교육을 사회적 독서교육으로 삼을 때,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신문 서평이 안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문 서평이 독서를 공부로 몰아가는 문제, 상업주의적으로 작성되는 문

제, 신문 서평의 대상 도서가 편중되는 문제, 신문 서평과 도서 광고의 구별이 모호한 문제, 신문 서평의 비전문성이 안고 있는 문제, 신문 서평에 상호텍스트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문 서평의 읽기와 독서 경험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독서와 공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문 서평의 상업주의적 태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내적 구조를 지닌 신문 서평을 풍부하게 수록해야 한다는 점, 신문 서평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신문 서평 중심의 사회적 독서교육은 독서 문화의 형성을 주도하는 독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 독서 태도 및 독서 습관의 형성을 지향하는 독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독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 독서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독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 비판적 독서를 지향하는 독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김선남(2008)은 '뉴미디어 시대 한국 독서문화의 특성'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부터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사회로 변모하였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독서행위 및 방법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독서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김수경(2014)은 'NIE를 활용한 독서교육 방안' 연구를 통해 문학텍스트와 신문의 실제적 사실이 사회·문화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목하여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류적 독서교육의 고답적 형식에서 탈피

〈표 2〉 선행 연구 정리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연구자	연구 내용
채예송(2014)	1960-1970년대에 간행되었던 신문자료를 근거로 독서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단체들이 학생들에게 권장했던 책 목록을 다시 주제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박영민(2004)	신문 서평과 관련된 독서교육을 사회적 독서교육으로 삼을 때,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김선남(2008)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부터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사회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독서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김수경(2014)	문학텍스트와 신문의 실제적 사실이 사회·문화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목하여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주연(2011)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임성관(2015)	본 연구는 독서 운동과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 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독서 문화 활성화에 신문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에 따른 과제와 사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여,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 교사와 학습자, 장르와 장르, 문학과 실재를 융합하고 소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NIE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방안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독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안하여 '관계적 맥락'으로 구체화 하였다. 이어서 평생 독서인을 만들고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학습자들의 긍정적 관심과 사회참여, 반듯한 인성이 교육 될 수 있는 길은 독서 교육에 있고, 학습자 및 책, 교사 및 사회의 소통은 독서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주연(2011)은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읽기 능력을 키우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에 매달리는 평생 독서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읽기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더 다양한 읽을거리를 골라 읽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프로그램 활용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으며,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 2〉는 이상의 선행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한 것이다.

### 3.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

발달된 인터넷 환경은 독서 개념도 변화시키고 있다. 즉 독서를 주로 책읽기로 생각하던 기존의 관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읽는 온라인 소설이나 잡지도 독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1999년 제6회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부터 성인 60% 가량,

학생 64% 이상이 온라인 소설이나 잡지 읽기도 독서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형태적인 책이 아니라 의미로써의 글이 독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서창호 2008, 26). 따라서 종이 신문이 아닌 PC와 스마트 폰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신문 읽기 역시 독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전통적인 책을 읽는 독서의 목적이나 기능과 달리 신문 읽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독서 운동과 연계가 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제안할 것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의 예시 또한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서 NIE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해 나가야 할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3.1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신문 읽기를 포함

국내 독서 진흥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중앙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서 진흥 정책을 수립, 수행한다는 면에서 명실 공히 문화체육관광부를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부), 군대(국방부), 교정기관(법무부) 등 대상과 장소를 세분화하여 각 부처의 독서 진흥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 진흥 정책을 살피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서 진흥 정책의 맥을 짚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이창희 2014, 7).

애초 독서 진흥에 관한 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뒤이어 <독서문화진흥법>이 우여곡절 속에 2007년 4월 5일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목적 아래 총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아래 ‘독서진흥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소외지역과 독서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교육의 기회 균등을 표 내게 내세우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비록 구체적인 규정들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추상적인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김상욱 2012, 50-51).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인연합회,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및 신문사들은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신문 읽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봤듯이 독

서의 범주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시사정보 매체들은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효과가 인정받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독서의 범주를 정할 때 '신문과 잡지' 등 시사정보 매체들을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 매체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것이 독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는 측면의 제안이기도 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신문 읽기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독서 형태를 미디어 전반으로 넓힌다는 측면을 담는 것이자,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독서 진흥 정책을 바탕으로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 3.1.1 신문 읽기 운동 단체 설립 및 독서 운동 단체와의 연계

정부에서 주도하는 독서 운동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전국에는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독서 운동을 행하는 단체들이 있다. 따라서 그 단체들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를 설립해 운동을 펼쳐나가거나, 연계를 통해 신문 읽기와 NIE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주목해야 할 단체이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함께 9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조직되었으며, 전국에 걸쳐 '기적의 도서관 건립 운동'과 'Book Start 운동',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희망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 읽기 운동'이나 'Newspaper Start 운동'을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전국의 '국어교사모임'이나 '사회교사모임' 등 NIE 활동과 조금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모임과 접촉하여 NIE 연수를 진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NIE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특히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모임'에서는 교과를 넘어 통합적인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들 중심의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도서관 사서 모임'에서도 NIE 연수를 진행하여, 학교도서관의 신문이 찾는 사람에게만 읽혀지는 매체가 아니라 사서 선생님이 먼저 권장하고 활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행복한아침독서'에서 추진한 '아침 독서운동'도 주목할 수 있는 활동이다. '아침 독서운동'은 차분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10분이라도 책을 읽히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도 꽤 큰 효과를 거둔 독서 운동이다. 따라서 아침 독서운동에 신문도 포함을 시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학교에 신문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방안이 성사되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읽는

다면 평생의 독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3.1.2 국민 독서 진흥 관련 행사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국민들의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해마다 여러 독서 관련 행사들을 기획하여 실행한다. 행사에는 독서 관련 단체(도서관, 출판사, 독서 관련 민간단체 등)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사업 및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거나, 간단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차 진부해지는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독서 관련 행사 중 ‘대한민국 독서 대전’은 3일 동안 이어지거나, ‘세계 책의 날’ 등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신문사 등 신문 관련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3>은 2015년 세계 책의 날 행사에 참여한 단체와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으로,

<표 3> 2015년 세계 책의 날 행사 참여 단체 및 프로그램

기관 단체명	운영 프로그램
한국출판인회의	역대 세계 책의 날 포스터 전시 등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선정도서 전시, 저자 초청 사인회 등
책읽는군포	“내 손에 책” 캠페인 홍보 등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병영우수도서 및 장병독서코칭사례집 전시
한국도서관협회	가족독서운동 캠페인 “책 읽는 가족”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 스타트 등 홍보
동화기있는집연구소	스토리텔링과 책 놀이마당 “책 밖으로 나온 이야기”
성공독서코칭센터	북(book)돋움 힐링 독서 프로그램 운영
서울도서관	“내가 만드는, 꿈꾸는 서울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아프리카 최빈국 기부 프로젝트 “K-Books 동화책 시리즈” 전시
한국독서동아리협의회	한국독서교육신문 전시 및 홍보
인천시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홍보
교보문고	출판사 연계 브랜드전
서울시설관리공단	공단 홍보 및 기념품 배포
커뮤니케이션북스/오디온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오디오북 및 전자책 전시 홍보 및 판매
온북TV	“나도 북캐스터” 방송 체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함께 가요 동네서점!” 공모전: 동·네·서·점 사행시 공모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회 및 저작권 서비스 소개
(사)행복한아침독서	독서정보 제공 무료 모바일앱 “행복한 독서” 시연 홍보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작은 책 만들기 체험
어린이도서연구회	주제 목록 전시
출판저널	세계 각국의 “세계 책의 날 행사 프로그램” 전시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작은 도서관 홍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 슬로건 공모/북 토크 도서 증정
국제팝업북아트협회	“팝업 북” 전시회
캐나다 대사관	세계 책의 날 “함께 하는 세계의 책”

이 행사는 추진 협의체가 8곳(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었고, 참여 기관 및 단체는 총 28곳이었다. 또한 총 88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행사에도 신문사 등 신문 관련 단체들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

### 3.1.3 신문협회 및 신문사 주도의 NIE 행사 개최

신문협회와 신문사 주도의 NIE 문화 행사도 해마다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공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신문을 사랑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공모전을 통해 수집이 된 작품들은 전시를 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NIE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도 있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는 신문을 오랜 세월 구독해서 읽은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신문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꾸준히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관련 행사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4>는 '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 '2014 신문 사랑 전국 NIE 공모전 공모분야 및 참가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공모는 학생과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일반인의 경우 현장에서 NIE를 지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할 것이므로 역시 교사나 관련 분야 연구자라는 제한점이 있음) 일반인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다만 '신문 만들기', '대학생 에세이', '올해의 학교 신문', '학교 공동체 NIE', 'NIE 사례 아이디어' 등 부문에 있어서는 대상에 따라 NIE 실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2014 신문 사랑 전국 NIE 공모전 공모분야 및 참가자격

공모부문		공모내용	공모자격
학생	신문 만들기	주제 신문 만들기(스크랩 기사를 활용한 신문 만들기)(B4 4쪽)	전국 각 급 학교 학생
	대학생 에세이	사회 현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 2개 이상의 신문을 읽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글쓰기(A4 3매 이내)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학교	올해의 학교 신문	전국 학교에서 최근 1년간 발간한 학교 신문 각 1부(교지, 영자신문 제외) ※ 발행인이 학교장인 신문에 한함	전국 각 급 학교
	학교 공동체 NIE	각 급 학교 또는 학년 단위로 최근 2년간 기획·운영해 온 협동 NIE 프로그램 및 경연 활동	전국 각 급 학교(년)
교사	NIE 사례 아이디어	전국 각 급 학교에서 실천한 NIE 수업 사례 또는 다양한 학습자 특성이나 학습 환경에서 교수·학습이 이뤄진 사례 중 택 1(1차시)	전국 각 급 학교 교원 및 일반인

### 3.2 국가 교육과정에 신문 읽기 혹은 NIE를 포함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의 역사는 미국에서 18세기 경에 시작되었다. 1795년 포틀랜드 이스턴 헤럴드(Portland Eastern Herald)지에서 '신문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값이 저렴하고도 정보가 풍부한 교재로서 학생들의 독해력과 지식을 높이는데 유용하다'고 밝혀 신문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1932년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지는 대학의 수업에 신문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신문을 교실에 배포함으로써 개별 신문사로는 최초로 NI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최상희, 2004).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미국 전역의 교육단체들이 이에 동참했고,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를 학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으로 확대시키면서 NIC는 1976년부터 NIE로 더 알려졌다(강석우 외, 2004). 1955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방 신문사인 '데모인 레지스터'가(www.desmoinesregister.com)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자 접촉 빈도'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40% 이상의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청소년들의 문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교육협회와 '데모인 레지스터'가 협력하여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신문의 교육적 활용이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넘어서 교육제도, 시설, 기구설립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 뒤로 NIC는 '캐

나다 일간신문발행인협회'에 의해 NIE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그 용어를 채택해 사용하게 되었다.

영국의 NIE는 1984년 영국신문협회의 프로그램 기획 하에 '버밍햄 포스트지'와 '데일리 뉴스페이퍼' 2개의 신문사가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NIE를 실천한 '선덜랜드와 에코지'는 시작 당시 15-24세 독자의 신문 열독율이 46%였으나, 6년 후 70%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NIE는 교육적 자원으로서 신문의 활용을 장려하고 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는 700개 이상의 신문사들이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NIE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미국의 신문 활용 교육을 모델로 삼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47년에 설립된 일본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신문 활용 교육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학생들의 문자 이탈 현상과 독서 기피 현상에 제동을 걸고 활자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협회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해외 NIE 시찰을 하고 그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인정한 뒤 1992년 2월 신문 활용 교육의 소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도쿄 내의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NIE 파일럿 계획을 실시했고, 그 흐름에 따라 47개 지역에서 NIE 추진 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각 지역의 조직은 주로 교육 현장에서 신문 활용 교육을 실천할 때 필요한 가이드북 시리즈를 발간하고, 초·중·고교의 교사들에게 의뢰해 실험 프로젝트를 실

시하고 있으며, 신문 활용 교육에 참여하는 신문사들 간의 영업경쟁을 방지하고 학교에 배부되는 신문의 판매와 배정을 책임지는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행되고 있는 NIE의 특징은 교육계와 신문계가 손잡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계는 일정기간 동안 신문을 학교나 학생의 가정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함께 조직을 결성해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네이버 블로그, '나는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제시한 내용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중심적이어서 교사 차원의 교수법이나 교재 개발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협조 체제가 잘 갖추어진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 NIE를 채택하여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NIE를 포함시켜야 하고, 이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연계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NIE를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 구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다.

2015년 4월 20일자 아시아뉴스통신 기사를 보면, 올해 대전시교육청 e-NIE 선도 학교로 지정 받은 대전법동초등학교에서 'e-NIE 선도 학교' 운영을 위해 'e-NIE Tool(Web)'을 통해 신문기사 검색 및 스크랩과 교안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신문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NIE를 실시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의 예가 될 수 있다.

### 3.2.1 교과 연계 신문 읽기 활성화 방안 모색

독서 습관은 어릴 때부터의 독서가 바탕이 되어 몸에 배어서 스스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신문 읽기 역시 습관이 되어 스스로 필요할 때 골라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와 학습은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다. 따라서 교과와 연계한 신문 읽기(예습 및 과제 해결)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신문을 적극 활용하는 교사들은 다양한 교과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계속 연구를 통해 연계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 현장에서 신문이 활용되는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첫째, 교과 연계 시 신문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카인즈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 사이트다. 현재 전국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및 영자지는 물론 지역신문의 기사 원문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기 전인 90년대 이전 신문부터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옛날신문의 기사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처럼 카인즈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기사검색은 물론, 특히 언론을 연구하거나 사회, 문화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검색, 면종별 검색, 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인즈를 알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 2015년에는 희망학교로 확대 운영하며,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탐색은 물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많은 학교들이 선택한 방법은 독서이다. 일례로 인천시부평도서관(관장 나영희)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은 2015년 3월 30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이 지역사회의 공감과 협조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평도서관은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 및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보면 각 학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 그러면서 적정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

은 것처럼, 신문사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적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융합교육에 신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융합교육이란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들을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교과 간에 관련 요소들을 조직할 때 신문 역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2.2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육 현장에서 신문 읽기와 NIE 활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표 5>부터 <표 8>에 제시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개발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 것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이 그 대상이다.

먼저 <표 5>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로, 소년 한국 일보에 실렸던 기사 한 편을 바탕으로 국보와 송례문의 의미를 알려주고, 더불어 4대문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내용이다. <표 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로,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의미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내용이다. 이어서 <표 7>은 ‘신문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적정 관계를 맺어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표 5〉 유아용 NIE 학습 자료

신나는 NIE 교실	2005.05.27
------------	------------

국보 1호 “송례문” 우리 곁으로...



“푸른 숲 잔디밭 지나 송례문 구경 가요!”

국보 1호인 송례문(남대문)이 9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27일 문을 여는 2500여 평 규모의 송례문광장을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은 송례문 바로 옆까지 다가가 그 웅장한 자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송례문은 일제의 도시 계획으로 인해 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져 1907년 이후 일반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2005.05.27. 소년한국일보〉

국보가 뭐예요?	<p>송례문은 어디에 있어요?</p> <p>서울의 4대문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p>
----------	--

〈표 6〉 초등용 NIE 학습 자료

신나는 NIE 교실	2006.03.
------------	----------

### ‘1호 기록’ 여성들

(: 대법관 김영란, 외국대사 이인호, 군 장성 양승숙, LPGA우승 박세리:) 한명숙 열린 우리당 의원의 첫 여성 총리 지명을 계기로 ‘금녀(禁女)의 벽’을 깨고 당당하게 각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이 된 인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준은 1945년 광복 이후이다. 각 분야에서 첫 ‘스타트’를 끊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우먼 파워’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초기에 남성의 장벽을 깬 분야는 주로 엘리트 여성들이 진출한 법조계와 관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52년 3회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황윤석 씨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어머니인 고(故) 이태영 여사는 최초의 여성 법조인으로 평생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 권익 향상에 앞장섰다.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은 71년 사시에 수석 합격해 화제를 낳았다. 그에게는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 최초의 여성 법원장이라는 수식어도 붙어 다녔다. 첫 여성 헌법재판관은 2003년 전효숙 판사가, 첫 여성 대법관은 2004년 김영란 판사가 차지했다. 이은수 중령은 지난해 첫 여성 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현 열린 우리당 최고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82년 입속경 씨와 함께 첫 여성 검사 1호를 기록 했다.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여성 최초 외국 대사로 유명하다. 1996~1998년 주 핀란드 대사를 역임한데 이어, 1998~2000년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최초의 여성 장군은 2002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에 임명된 양승숙 현 한국전력 감사다. 신혜수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여성 최초로 유엔 임원(여성차별철폐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김강자 씨는 첫 여성 경찰서장이 됐다.

학계에서는 양현아 박사가 2003년 첫 여성 서울대 법대 교수에 임용됐고, 박인숙 울산의대 학장은 2004년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최초의 의대 여성 학장으로 선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성남 현 금융통화위원이 2004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여성 최초로 금융통화위원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국내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금융계에서는 지난 81년 조흥은행 장도송 씨가 첫 여성 지점장(반포 남 예금취급소)이 됐다. 문애란 씨는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로 2002년 광고 대행사인 웰컴의 대표로 취임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양궁 선수 서향순 씨가 84년 첫 여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으며, 98년에는 박세리가 미국 LPGA에서 첫 우승을 했다. ‘사라예보의 신화’로 유명한 이에리사 씨는 지난해 태릉선수촌의 첫 여성 촌장으로 부임했다. 지현옥 씨는 93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남성 전유물로 인식되던 분야의 여성 도전도 거세다. 이현주·정 형량 여군 소위가 처음으로 ‘금녀의 집’인 해군 함정을 뒀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윤하나 교수는 비뇨기과 첫 여성 교수가 됐다. 첫 여성 바둑기사인 남치형 씨는 2003년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에 임명됐다. 강은옥 씨는 2000년 첫 여성 철도기관사가 됐다.

〈2006.03.25. 문화일보〉

1. 먼저 기사를 읽고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사전에서 뜻을 찾아 적어 봅시다.

2. 위 기사처럼 어떤 분야이든 '최초'가 기억되고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최초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4. 어쨌든 여성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의 최초가 나올 것 같은지, 혹은 나왔으면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내가 최초로 개척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를 써도 좋습니다!)

종류	이유

〈표 7〉 신문을 활용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차시	영역	활동 내용	준비물
1	프로그램 설명 및 자기소개	강의 계획 및 프로그램 소개하기, 온 몸으로 표현한 나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전지 1장, 색연필
2	나를 알립니다	신문 명함 만들어 친구들에게 돌리기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두꺼운 도화지 8절 1장
3	관찰을 통한 서로의 공통점 찾기	참가 어린이들의 취미나 특기가 담긴 신문의 사진(그림)을 활용한 공통점 찾기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스케치북
4	관찰을 통한 서로의 차이점 찾기	신문지 뒤에 가려진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하나씩 보며 누구인지 맞추기	신문 1부, 빨래집게, 줄, 가위, 풀, 스키타이프
5	신문 모자 칭찬 릴레이	서로의 장점만 보이는 요술 신문 모자를 쓰고 서로에 대한 칭찬 해주기	신문 1부, 필기도구, 색도화지 1장, 풀, 가위, 색연필
6	주장훈련으로 의사표현하기	이런 친구가 참 좋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에게 신문 전화 걸기	신문 1부, 필기도구, 풀, 스키타이프, 종이집 1개
7	친구들과 누리 맺기 1	신문지를 접고 접어, 신문으로 만드는 모자·배·옷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전지 1장, 색연필
8	친구들과 누리 맺기 2	신문지 모자를 활용한 역할 놀이	신문 1부, 필기도구, 싸인펜, 풀, 가위, 색도화지 3장
9	협동심 키우기 1	신문지로 팡팡팡, 신문 조각 퍼즐 맞추기	신문 1부, 풍선 1개, 신문 조각 퍼즐 2개, 필기도구
10	협동심 키우기 2	신문에서 찾기: 특정 물건 및 단어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전지 1장
11	협동심 키우기 3	만화 내용 릴레이	신문 1부, 필기도구
12	모둠신문 만들기, 종결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신문 만들기, 발표와 종결	신문 1부, 잡지 1권, 4절지 1장, 가위, 풀, 색연필

〈표 8〉 신문을 활용한 읽기 부진아의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차시	영역	활동 내용	준비물
1	프로그램 설명 및 누리 맺기	강의 계획 및 프로그램 소개하기, 신문과 친해지기, 친구들과 누리 맺기	신문 1부, 필기도구, 가위, 풀, 색연필, 스케치북
2	집중력 기르기	숨은그림찾기, 네모네모 로직, 스토쿠	"
3	순서 맞추기	조선일보 연재만화 '빨간 자전거', 소년한국일보 연재만화 '팔방이' 등 내용 순서 맞추기	"
4	어휘력 기르기	단어 목록 읽기 과제, 발음이 어려운 단어 찾아보기	"
5	바르게 낭독하기 (VAKT)	발음 연습표· 발음 연습 문장 연습, 동시 분위기에 어울리게 읽기	"
6	단어 유창성	마인드맵, 단어 연결하기, 그림으로 낱말 연상하기(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들 써보기)	"
7	문장 이해하기	기사 내용 말로 전하기, 비유에 담긴 의미 알기 1: 속담·격언	"
8	문단 이해하기	비유에 담긴 의미 알기 2: 유머 나도 기자다, 신문으로 독서하기	"
9	POSSE 전략	추측하기, 조직하기, 탐색 및 요약하기, 평가하기	"
10	기사문 발표 및 종결	프로그램 수료 소감을 기사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기	"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8>은 '신문을 활용한 읽기 부진아의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다. 읽기 및 이해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사가 실리는 신문을 바탕으로, 읽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해 본 것이다.

<표 5>와 <표 6>의 학습 자료는 각 신문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NIE 활동을 지원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하며, 기사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와 연결을 지어 심화학습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자료는 학생들에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신문 학습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교사 및 사서가 함께 읽고 설명과 토의·토론까지 진행을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 8>에 제시한 '신문을 활용한 읽기 부진아의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NIE 대회 교육과정 개발안 부문'에서 3등을 수상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문을 활용해도 읽기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는 가치를 내포하고, <표 7>은 신문을 활용해 사회성을 키워 주는 프로그램도 설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속 연구자와 현장 교육가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은 사회성 및 읽기 능력 관련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면 된다.

### 3.3 도서관에서의 NIE 활성화 방안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필요한 사람

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자료에는 신문도 포함이 되는데, 1995년도 중앙일보에서 NIE를 천명하고 본격적인 과정을 개설한 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도 NIE와 관련된 과정(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NIE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관련 과정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도서관에서는 신문 역시 수집 및 보존, 이용을 시켜야 하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독해 원하는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 해두고 있다. 따라서 신문이 갖고 있는 살아 있는 교과서로서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도 NIE를 활성화 시켜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신문 읽기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에서는 NIE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담당 사서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 4.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독서의 범위에 신문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인터넷 기반 등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신문을 읽는 사람의 숫자는 날로 줄어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신문을 독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세계

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기의 학생들에게는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신문 읽기의 가치를 몸에 배게 하여 향후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신문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독서 운동과 연계가 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학습 자료의 예시 또한 제시하였다. 그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신문 읽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부

방안으로는 신문 읽기 운동 단체 설립 및 독서 운동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거나, 국민 독서 진흥 관련 행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신문 읽기 혹은 NIE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해 예습을 하거나 본 교과목 수업 시, 나아가 과제를 행할 때 신문 읽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해 원하는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두는 소극적인 활용 행태에서 벗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신문 읽기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강의하고, 나아가 참여를 통해 NIE를 체험하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강석우 외. 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3] 권주연. 2011.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4] 김상욱. 2012.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독서연구』, 27: 42-63.
- [5] 김선남. 2008. 뉴미디어 시대 한국 독서문화의 특성. 『한국출판학연구』, 55: 45-70.
- [6] 김수경. 2013. 『NIE를 활용한 독서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7] 김훈순. 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매체 연구, 25.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8] Naver Blog. 2011. *World NIE*. [online] [cited 2015. 7.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fumshop&logNo=120127690029>>

- [9] 도정일 외. 2008. 『책, 세상을 탐하다』. 서울: 평단문화사.
- [10]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제15회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1] 박영민. 2004. 신문 서평의 비판적 검토와 사회적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12: 53-87.
- [12] 박몽구. 2014. 해방 후 한국 독서운동의 성과와 반성. 『한국출판학연구』, 40(1): 95-116.
- [13] 법동초 2015학년도 e-NIE 선도학교 운영. 2015. 『아시아뉴스통신』. 4월 20일.
- [14] 서창호. 2008. 『1993년 이후 한국 독서운동의 전개양상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15] 성태모. 2011. 효율적인 교육 매체 활용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19: 39-82.
- [16] 윤관석. 2013. 『국정 감사 보도자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17] 윤금선. 2007.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71-294.
- [18] 이성영. 2014. 독서정책의 목표와 수단. 『독서연구』, 32: 213-243.
- [19] 이창희. 2014. 『독서 진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 채예송. 2014. 『1960-1970년대의 독서 운동에 관한 연구: 신문 자료에 나타난 독서 목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21] 최상희. 2004. 『NIE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2] 허재영. 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서울: 박이정.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uk-Woo et al. 2004. *How will you teach NIE*. Seoul: Communication Books.
- [2]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Doosandongga.
- [3] Kwon, Ju-Youn. 2011.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Macro Reading with Newspaper Tex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4] Kim, Sang-Wook. 2012. "The Present Condition and Direction of Reading Movement."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7: 42-63.
- [5] Kim, Sun-Nam.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Reading Activities Shown in the Era of New-media."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55: 45-70.
- [6] Kim, Su-Kyung. 2013. *A Study on Reading Education using NI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7] Kim, Hun-Soon. 1994. *A Study about the educational utilization of Newspapers*. 25th ed. Journal of Youth & Typographic Medi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8] Naver Blog. 2011. *World NIE*. [online] [cited 2015. 7.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fumshop&logNo=120127690029>〉
- [9] Do, Jung-Il et al. 2008. *Book, Be Greedy of World*. Seoul: Pyeongdanmunhwasa.
-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2013 15th National Rea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1] Park, Young-Min. 2004. "Critical Investigation of Papers' Reviews and Principles of Social Reading Instruc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2: 53-87.
- [12] Park, Mong-Gu. 2014. "Performance and reflection on the reading exercise in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s*, 40(1): 95-116.
- [13] "Beopdong Elementary School Implementation of e-NIE Model Schools in the 2015." 2015. *Asia news agency*. April 20.
- [14] Seo, Chang-Ho. 2008. *Analysis on the Trend of Reading Movement in Korea Since 1993*. Ph.D. dis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15] Sung, Tae-Mo. 2011. "Ways to Effectively Optimize Educational Media." *The Journal of Korean Arts Education Research*, 19: 39-82.
- [16] Yoon, Kwan-Seok. 2013. *News release of Korean Congressional Inspective*.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17] Yeun, Keun-Sun. 2007.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Focus in 1960'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271-294.
- [18] Lee, Seong-Young. 2014. "The goals and means of reading policie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2: 213-243.
- [19] Lee, Chang-Hee. 2014. *A Critical Review of Policy for Reading Promo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20] Chae, Ye-Song. 2014. *A Study on reading movement in 1960s-1970s: Focusing on reading lists indicated in newspaper material*.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21] Choi, Sang-Hee. 2004.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NIE*. Seoul: Communication Books.
- [22] Heor, Jae-Young. 2006. *Understanding & Exploring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Pagijong Press.

